

한국전쟁기 유엔에 대한 일본의 협력활동

李 鍾 判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머 리 말
-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견해
- 유엔군에 대한 일본의 협력
- 맺 음 말

1. 머 리 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약 1년전인 1949년 3월 3일 맥아더는 런던의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에서 소련의 동향, 공산주의의 위협 등에 대해서 회견하면서 “극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일본을 싸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역할은 태평양의 스위스” 라면서 일본의 중립화를 고집하고 있었다. 아울러 “오키나와를 확보한 후에 오키나와에 25개 비행장을 건설했고 이 비행장에서는 B29를 1일 연 3500회 발진할 수 있다. 게다가

싱가포르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아시아 전역은 행동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하면서 오키나와만 확보하면 극동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일본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한 "태평양전쟁의 승리로 과거에는 태평양이 적의 예상침투로였으나 이제는 미·영의 호수가 되었고, 미국의 방위선도 미본토 연안에서 아시아 연안을 연하는 島嶼까지 확장되었으며, 필리핀에서 류큐열도, 일본열도를 거쳐 알류산열도, 알래스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¹⁾

이와 같이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승리로 태평양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본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고, 오키나와를 영구히 지배하여 일본은 물론, 중국, 극동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거점을 만들었다.²⁾ 한국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맥아더는 오키나와를 요새화 하면 일본 본토에는 기지가 필요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같은 맥아더가 한국전쟁의 전황이 어려웠던 1951년 신년사에서 평화 헌법³⁾의 이념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만약 국제적인 무법질서가 계속되어 평화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면 그 理想은 할 수 없이 자기보존의 법칙에 양보되어야 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같이 유엔의 원칙 범위에서 힘(무력)을 격퇴하는데 힘(무력)을 가지는 것이 諸君(일본)의 의무가 된다"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킨다.⁴⁾ 전쟁은 開戰으로 시작하여 講和條約(treaty of peace : 平和條約이라고도 함)으로 전쟁이 종결된다.⁵⁾

1) 大嶽秀夫,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第I卷』(東京 : 三一書房, 1991), pp. 226-227.

2) 일본이 항복한 후 일본을 間接통치하면서도 오키나와는 미군정이 直接통치하였으며, 1972년 5월 15일부 일본에 반환했다.

3) 1947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헌법 제9조에서는 전쟁포기, 戰力 불보유, 交戰權 否認을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책,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第II卷』, pp. 27-28. 맥아더 신년사 : 外岡秀俊, 本田優, 三浦俊章, 『日美同盟半世紀』, 朝日新聞社, 2001, pp. 86-87.

5) 講和는 전쟁지도의 중요한 일부이다. 이것은 보통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휴전협정, 2단계는 강화조약의 체결이다. 강화조약은 교전국사이에 존재하는 전쟁상태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으나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측을 배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측 49개국과 체결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됨으로써 한국전쟁이 開戰되는 시점은 태평양전쟁이 완전히 종결(termination)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평양전쟁의 연장선에서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重層的 連續線上에 발발했던 한국전쟁도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동경에 설치되었던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에 서울로 이동했으나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아직도 동경의 자마(座間)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4년 2월 19일에 미·일 양국이 체결된 '유엔군 지위협정'은 아직도 유효하다. 한국전쟁 당시의 한·미, 미·일, 유엔과의 관련성은 차후의 한반도 유사시에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련성은 연구할 분야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승전국인 미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는 起源이 된다. 한국전쟁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방향성(vector)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논문은 한국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을 최대한 활용했고 일본은 유엔에 대한 협력을 명목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분석하고 협력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탈냉전 이후, 미·일 新가이드라인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여 미·일 新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국전쟁 당시의 일본의 대응은 선행연구가 되지 못했다.

만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관계의 회복, 영토·전쟁범죄·조약관계의 조치, 배상 청구권,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酒井鎬次, 『戦争指導の實際』(東京, 改造社, 1941), pp. 19-22를 참조.

1997년에 미일안보협의회에서 승인한 미·일 新가이드라인에서의 미·일 간의 협력항목을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 평가하여 한·미·일 共助關係를 정립하는데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2.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견해

(1) 일본 의용군 투입론 대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參戰聲明을 1950년 6월 27일 발표했다. 맥아더는 우선 주일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본의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정부에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령했다 (1950년 7월 8일).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을 소련이 세계를 제패하려는 시도로 보고 제3차 세계대전을 대비하여 독일과 일본의 잠재적인 전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1950년 7월 20일, 덜레스는 일본인을 유엔안보리 예하의 유엔군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활용이 중요하다. 소련이 이 두 지역을 장악하면 장기전이 된다. 소련에 가까이 있는 일본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면 미국으로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강력한 중앙경찰과 연안경비를 재건하는 것이고 ② 개개의 일본인을 국제군사기구에 편입해야 한다. ②안에 대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헌장 제43조⁶⁾에 따라 일

6) 유엔헌장 제43조 : “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안보리의 요청에 의하여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병력원조 및 편익을 안보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위의 조항으로 해석하면 일본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유엔회원국도 아니다. SCAP에서 일본을 점령하면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정부를 대신하여 일본인 개개인을 SCAP이 통제하여 유엔군에 편입하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을 개별적으로 유엔군에 편입시키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헌장 제43조에는 일본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일본인 개개인을 유엔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파견요원은 일본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임명한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⁷⁾ 것이다.

이 제안에 미국무성 정책기획실에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하여 “일본 스스로가 재군비를 한다고 제안할 입장이 못된다. 또한 다른 극동위원회 회원국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전쟁상태이고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본이 군사력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델레스의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본군을 점령군 아래서 근무할 수 있도록 SCAP⁸⁾에서 승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역 구축함이나 경비정을 SCAP에 위임하여 일본인으로 편성하여 일본의 침입을 저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⁹⁾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맥너슨 상원의원(민주당)도 일본 의용군을 징집하도록 제안했고, 아시타 히토시(芦田均) 의원도 같은 안을 주장했으나 맥아더는 이러한 제안이나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맥너슨 의원의 근본 취지에 동의하나 일본은 아직 강화조약이 체결 안되었고 국제관리를 받고 있어 이 제안이 실행되기 어렵다”¹⁰⁾ 는게 맥아더의 반대 이유였다. 그러나 그 후 1951년 맥아더는 신년사에서 일본에게 재무장을 권장하게 되는데, 이 때의 戰況은 한반도 전 국토를 장악하기 직전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지역에서 철수하게 되고 다시 1·4후퇴로 서울을 다시 빼앗길 위기에 있었을 때이다. 1951년 1월 3일,

7) 위의 책,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 第1卷』 pp. 427-428. 델레스가 미정책기획국장에게 보낸 메모랜덤 (1950. 7. 20).

8) GHQ/SCAP :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의 약자로 연합군최고사령부를 칭하며 간단히 GHQ라고 한다.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구. 이 사령부는 본래의 미태평양 육군총사령부와 일본점령을 위해 전문부서를 갖춘 점령군사령부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다.

9) 위의 책, pp. 428-429. 미정책기획국의 메모랜덤 (1950. 7. 26)

10) 위의 책, p. 429. 맥아더의 맥너슨 상원의원에 返電 : 일본의용군은 의문 (1950. 8. 8).

美극동사령부는 경찰예비대는 '한국전쟁의 필요에 합치한다'면서 미 지상군과 같은 수준의 중무장으로 4개 사단병력을 건설하고 아울러 다시 6개 사단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예산조치를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했다. 美합참에서는 물론, 마셜 국방장관까지 이 제안을 지지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경찰예비대를 본격적인 군대로 재편성하여 훈련을 시킨 후 한국전쟁에 투입할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1일 미국무성에서 이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유는 만약 이렇게 되면 미국의 최우방국마저도 편견을 갖게 될 것이고 對日 정책수행에서 미국은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였다. 또한 소련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으며 대일강화조약에 미국에 적극 협조해 왔던 영국도 이반할 것이라는 판단이였다.

美합참은 국무성과의 대립없이 이 제안을 취소하긴 했으나, 이 제안이 나온 직후부터 일본국내에서는 평화4원칙(전면강화, 중립견지, 군사기지제공 반대, 재군비 반대)을 기준으로 저항운동이 격화되고, 철도, 전노조, 항만, 자동차 등 후방지원이나 전쟁특수와 관계가 깊은 노동조합에서는 쫓겨나고 회의를 열어 평화4원칙을 지키라는 요구가 격렬했다. 이러한 움직임도 일본투입론에 제동을 거는데 크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¹¹⁾ 이러하여 일본의 전장투입은 피할 수 있었다.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일본이 재무장하여 한국전에 투입될 뻔 했다.

(2)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발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요시다는 하코네(箱根)에서 휴양중이었는데,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일체 거절하였다. 대신에 훗날 外相이 된 오카자키(岡崎勝男) 관방장관이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의 交戰은 전혀 예기치 못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3차대전이 되지는 않을

11) 佐佐木隆爾, 日本の後方支援, 『朝鮮戰爭』(下), (東京, 學研, 1999), p. 139.

것이다. 지금 교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과의 교역에 선박왕래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 對日講和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말할 수 없다. 국내치안은 우려되나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할지 요시다 수상의 意向도 지금으로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전쟁 발발 첫날의 최초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요시다는 6월 28일, 내각개편을 하였는데, 이것은 6월 4일 참의원 선거 후 예정되었던 스케줄이었으나 한국전쟁 발발에 대응하고 반공체제를 갖추는데 있었다. 4명(大藏, 建設, 經濟, 官房장관)을 유임시키고 전원 교체했다.¹²⁾

또한 요시다는 보수계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에게 장관 3석을 주었다. 7월 4일, 각료회의시 한국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해 행정조치 범위내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을 승인했다. 즉 일본상선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물자수송, 국내통신망 이용, 특정노동자의 초과근로대책 등을 규정했다. 요시다 수상이 기자회견에 응한 것은 내각을 개편하여 당내인사를 쇄신한 후 7월 11일이었다.

요시다는 6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의 動亂에 유엔기를 걸고 미군이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조선의 동란에 일본 국민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평화애호국으로서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도둑이 들어오면 잡아야 하고 에덴 동산에 폭탄을 던지려는 자가 있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유엔이 지켜 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영세중립은 早期講和를 방해하는 空論이라고 단정했고 협력하고 싶어도 점령하에서는 적극적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軍事輸送이나 미국군대의 통과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단속하는 등의 소극적인 협력은 할 수 있다.」. 세계는 일본이 국제단체의 일원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¹³⁾이라면서, 요시다는 한국전쟁을 일본 독립의 열쇠가 되는 강화조약과 관련하여 국내 정치·이데올로기 준비를 위한

12) 信夫清三郎, 『戦後日本政治史(IV)』, (東京, 頸草書房, 1966), p. 1152.

13) 朝日新聞, 1950. 7. 12.

기회를 마련하려 했다 할 수 있다. 소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방으로부터 講和를 얻어 내려는 속셈이었다.

1950년 7월 14일 제8회 국회 개회연설에서, 요시다는 한국전쟁에 대한 입장을 표명되는데, “현재 남한은 혼란상태에 있다. 이 사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공산세력이 이미 일본주변에 밀려오고 있음을 實證하고 있다. 赤色 침략자가 어떻게 마수를 흔들고 있는지 조선사건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다대한 희생에 감수하고 출동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 만일 大戰爭으로 확대되면 군비 없는 일본의 안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으로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든가 유엔의 활동에 참가한다는 입장은 아니나,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태와 관련하여 全面講和나 영세중립이나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애국심에서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스스로 공산당 모략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발상이다. 정부가 먼저 공산당중앙위원회 및 기관지 赤旗 편집자를 공직에서 추방한 것도 이러한 취지였다”¹⁴⁾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나 한국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미국과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공산당 기관지 「赤旗」에서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공산주의에 의한 남침이라고 단정했다. 이 때의 戰況은 유엔군이 공주-청주-단양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여 대전이 함락되기 직전이었고, 또한 全面講和와 중립노선이 일본여론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으로 보아 유엔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서방진영에 의한 多數講和만이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 좌익세력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50년 8월 19일 외무성 정보부에서 「(朝鮮の動亂とわれらの立場)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라는 제목으로 外交白書を 발표하게 된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약 6주째였다. 그

14) 앞의 책,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1卷, pp. 441-442.

당시 戰況은 북한군의 8월 공세에 영덕지구가 함락되고 전선은 포항-다부동-대구-마산을 연하는 선에서 남한의 전영토를 북한이 장악하기 직전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발표한 이 팜프렛에서는 「朝鮮動亂의 배경」, 「유엔의 궤기」, 「動亂의 향후 전망과 思想戰」, 「결론」 순으로 상세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 팜프렛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동란 배경」에서는 “6월 25일 새벽 돌연히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노도와 같이 돌파하여 침략을 개시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킨다’고 스스로 주장한 공산세력이 이제 분명히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자유를 박탈해 오고 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거나 이상한 것도 아니다. ‘두 개의 세계’라는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자유’에 대해서도 ‘평화’에 대해서도 개념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대립은 외교교섭이나 국제연합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이다.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뮌헨협정 때의 일이다. 사태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자유세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정체결 후 반년도 되지 않아 독일이 체코를 합병하고 폴란드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자유세계는 뮌헨협정에서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의 야망에 대해 유화정책은 절대로 의미가 없다. 야망은 그 銳鋒이 나타났을 최초 단계에서 단호하게 잘라 버려야 한다”¹⁵⁾고 하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朝鮮動亂이라 칭하면서 한반도에서의 共產과 自由의 內戰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動亂이 단순히 남북한간의 內戰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공산진영(소·중·북한·日共과의 연계)과 자유진영(미국 및 서방·남한)의 전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전쟁을 남한에서 저지하지 못하면 독일의 체코 합병을 방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것처럼, 차기 목표는 독일이 폴란드를

15) 神谷不二, 『朝鮮問題戰後資料』第I卷,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6), pp. 426-428.

공격한 것과 같이 일본이 차후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엔의 쫓기」에서는 “북한 공산군이 한국을 공격했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들의 가슴을 놀라게 한 것은 일본의 장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였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부터 혐오하는 전투가 바로 바다 건너 한국에서 불행하게도 발발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투가 대규모로 확대되는 경우, 헌법에 따라 군비를 포기한 일본이 어떠한 운명에 빠질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미 정부와 유엔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작년 6월말 한국에서 군대가 철수한 후에 소수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있는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일본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등한시 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엔의 이와 같은 강경 조치와 병행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26일 밤, 미국의 해·공군의 출동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27일 안보리 결의 후 즉각 해·공군을 한국에 지원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공산세력이 지금 지하운동을 벗어나 침략전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 제7함대에 대만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도록 명령했고, 30일 안보리 결의에서 유엔 회원국 59개국 가운데 52개국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측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소련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대단히 주목할 점이다”¹⁶⁾ 라고 강조하여 한국전쟁을 세계대전의 전초전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유엔회원국이 쫓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응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쟁에 대비하여 전개했다고 언급했다. 비무장상태의 일본은 대부분의 유엔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일본도 미국주도 유엔의 편에 서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動亂의 전망과 사상전」에 대해서 “두 개 진영의 대립은 북한군의 침략을 계기로 해서 전세계에 걸쳐 무력대결로까지 진전되었다. 동란 지역인 한반도를 일의대수의 위치에 있는 우리 일본 국민으로서 한국의 위기가 미·소 양국간의 직접적 무력투쟁으로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대한

16) 앞의 책, pp. 428-430.

심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이 무력으로 나서서 戰況의 확대를 방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개의 세계진영의 무력대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思想戰이다. 한국전쟁은 얼핏 보기에는 한반도의 국지적 문제로 여길 수 있으나 실체는 다르다. 사상전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이미 전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공산주의는 일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인은 완전히 한국동란 와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세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不介入'이나 '中立'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상전의 견지에서 이미 전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전에서 적 앞에서 도망하는 것과 같으며 자주독립을 회복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유엔군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후에서 유엔군의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공작활동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엔군의 중요한 거점인 우리나라에서 일부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서 파괴공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계획화 되어갈 위험이 있다"¹⁷⁾ 하고, 일본도 사상전에서 한국동란의 전장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 유엔군의 중요거점인 일본이 不介入이나 中立과 같은 애매한 태도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에서는 "우리의 나갈 길은 둘이나 하나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세계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협력을 유엔에 함으로써 그 안전보장 아래에 평화적인 민주 일본을 건설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바로 일본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이다. 한국의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유엔군에 허용하는 한 협력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명이 파괴된다.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세계의 大動亂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¹⁸⁾ 이라고 강조, 일본의 선택은 민주진영에 서야

17) 앞의 책, pp. 430-432

하고, 한국과 유엔이 한반도에서 공산진영의 공격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논리로 정리하여, 戰後 일본 국내의 공산·사회계열의 좌익과 서방계열 우익의 대립이 극렬한 가운데 한국전쟁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으로 해석하고, 이 민주주의 수호전쟁이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인데 한국에서 代理하므로서 일본의 안전을 수호해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전쟁을 한반도에서 막지 못하면 일본으로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유엔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방침을 규정한 것이다.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출동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미국보다는 유엔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8월 29일 요시다는 맥아더에게 보낸 “일본정부는 귀하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시설이나 노무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유엔 십자군에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이다”¹⁸⁾ 라는 서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주권이 없이 GHQ점령하에 있기 때문에 直接的인 개입은 불가하여, 間接的인 개입의 명분을 찾게 된다. 미국지원이라는 명분으로는 국내의 상황으로 볼 때 整合性이 부족하여 유엔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원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유엔군의 주도국인 미국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早期·多數講和를 추진하겠다는 요시다 정책이라 할 수 있다.

早期·多數講和가 일본내 좌우익의 대립과 국론분열이 극렬했던 국내정세를 정리하는 요시다 정권의 정책이었다면, 일본의 對한반도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1963년에 요시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한반도가 일본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은 새삼 말할 나위 없다. 유사이래 일본에 대한 외부위협은 한반도를 경유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발단은 한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18) 앞의 책, pp. 426-432.

19) 神井林二郎, 『吉田茂=マッア-サ往復書翰集』,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2000. 5), p. 340.

공산세력이 북쪽을 장악하여 38선을 연하고 있다. 만약에 남쪽 부산까지 지배하면 일본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현상은 만약에 과거의 일본이었다면 일본은 자위전쟁을 유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태평한 분위기에 젖어 한가하게 마음을 놓고 향유하고 있는 것도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께 前線을 지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있으나 지적했듯이 일본의 안보는 안보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한반도 前線은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부담은 가볍고 경이적인 경제발전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²⁰⁾ 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다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大東亞共榮圈이라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는 또한 “일본은 패전으로 영토가 반으로 줄어들었다”²¹⁾ 고 했다. 한반도는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전략적 관심지역이었으나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힘의 공백을 미국이 이를 승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도 있었던 듯하다. 조지 케난이 1951년 시카고 대학에서 연설한 다음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설정했던 과거의 목표는 오늘날 표면적으로는 거의 달성되었다. 일본을 만주와 한반도에서 몰아내었다. 일본을 몰아낸 결과는 현명한 사람들이 경고한 대로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반세기에 걸쳐 한국과 만주에서 일본이 직면했던 문제와 책임을 인계 받은 것이다”²²⁾ 는 논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과거의 전통적인 대동아공영권의 군사지역개념인 1, 2, 3地帶²³⁾ 중에

20) 吉田茂, 『世界と日本』, (東京, 番町書房, 1963), pp. 148-149.

21) 위의 책, p. 150.

22) George F Kennan, American Diplomacy(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p. 52.

23) 논자가 언급한 대동아공영권의 군사적 개념은 일본의 방위권을 1, 2, 3地帶로 구분하고, 1지대는 主權線으로 일본본토 및 일본근해까지, 2지대는 일본근해를 위협하는 지역인 利益線으로 한반도, 남만주, 유향도, 대만, 사할린까지, 3지대는 확보된 이익선에 대한 위협지역인 防衛安全圈으로 만주, 몽고와 중국의 북·서·남해안을 포함한 중국대륙, 중국 남단의 해남도와 인도차이나 반도로 구분하였다.

서 제2지대의 전쟁을 미국이 대신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주도의 유엔에 편승(bandwagon)하여,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호기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GHQ의 점령하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은 모두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3. 유엔군에 대한 일본의 협력

(1) 한국전쟁 당시의 주일미군상황

한국전쟁 당시 주일점령군은 다음과 배치되어 있었다.²⁴⁾

GHQ 총사령부 : 동경

육군 제8군(사령부 : 요코하마), 1군단 : 교토(京都), 9군단 : 센다이(仙台)는
1949년 폐지

제7보병사단(사령부 : 마코마나이(真駒内) 후방사령부 : 센다이(仙台)

※ 1949년말 현재

제17연대 : 센다이(仙台)

제31연대 : 마코마나이(真駒内)

제32연대 : 하치노헤(八戸)

포병부대, 직할부대 : 진쵸(神町)

제1기병 사단(사령부 : 아사카 朝霞) ※ 1950년 6월 현재

제5연대 : 아사카(朝霞)

제7연대 : 아사카(朝霞)

제8연대 : 자마(座間)

포병부대, 직할부대 : 고이즈미(小泉)

24) 山崎静雄, 『史實で語る朝鮮戦争協力の全容』, (東京, 本の泉社), 1998, pp. 33-34.

제24보병사단(사령부 : 오쿠라 小倉) ※ 1948년말 현재

제19연대 : 벳푸(別府)

제21연대 : 키다쿠마모토(北熊本)

제34연대 : 사세보(佐世保)

포병부대, 직할부대 : 카스가(春日)

정찰, 전차, 공병부대 : 야마구찌(山口)

제25보병사단(사령부 : 오오사카(大阪) ※ 1948년말 현재

제24연대 : 기후(岐卓)

제27연대 : 사카이(堺)

제35연대 : 오오츠(大津)

포병부대, 직할부대 : 나라(奈良)

제29연대 전투단 : 나하(那覇) ※ 1950년 6월 현재

맥아더 회고록에 의하면 “제8군을 구성하는 제7, 제24, 제25, 제1 기병사단이 큐슈(九州)에서 홋카이도(北海道)까지 주둔하고 있었다. 제8군사령관은 워커장군으로 과거 유럽전선에서 패튼장군 휘하에서 군단장을 역임한 전쟁경험이 풍부한 장군이었다. 일본에 주둔했던 보병부대는 표준전력의 1/3이었으며 연대는 2개 대대로 편제되었고, 장비도 중전차(重戰車)도 없이 경전차(輕戰車)였고, 155밀리포가 아닌 105밀리 유탄포로 편제되었다”²⁵⁾

맥아더가 지휘했던 극동군 현황은 다음과 같다.²⁶⁾

1947년 1월경 : 약 30만명(이 중에서 4,200명은 육군항공요원)

1948년 1월경 : 약 14만 2,000명

1949년 6월경 : 약 12만명(이때 주한미군철수완료)

1950년 6월경 : 제8군과 고사포 7개 중대, 오키나와에 주둔한 보병 1개 연대 및 고사포 2개 중대, 제8군 정원은 8만 7,215명이었으나, 실병력은 4만 5,561명 수준으로 감편운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병참,

25) マッカーサー(津島一夫譯), 『マッカーサー回顧録』(下), (東京, 朝日新聞社, 1964), p. 214.

26) 大森實, 『講和の代償』, (東京, 講談社, 1981), p. 63.

용역 등 지원병력을 제외하면 실제 전투병력은 2만 6,49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전쟁에 군사적 투입은 없었으나 UN군의 '군수기지'로써 기능을 했다. 당시 일부 매스컴에서는 '일본군이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 일제식민시대에 일본인 철도전문가, 해운전문가들이 보도기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거나 일본 국내에서 '군수업무'에 참여한 것을 잘못 보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1952~53년 주일미국대사를 지냈던 머피는 "한국전쟁은 일본열도를 순식간에 거대한 보급창고로 만들었다. 이러한 일본의 기능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인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대를 만들겠다는 요구도 없었고 그것이 허용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선박과 철도전문가들은 숙련된 부하직원과 같이 한국에 가서 미국과 함께 유엔사령부 예하에서 활동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그 당시는 극비사항이었다. 한국사정을 잘 아는 수천명의 일본 전문가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유엔군은 한국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다.²⁷⁾

아울러, 원산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구일본해군으로 구성된 해상보안청의 항로개발본부에서 기뢰 제거작업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²⁸⁾ 이처럼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일본을 활용했다.

(2) 주일미군의 한국 투입기지

미국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위치한 제24사단을 제일 먼저 출동시

27) マーフィ (古垣鐵郎譯), 『軍人の中の外交官』, (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54), p. 442.

28) 守屋健郎編, 『再軍備の軌跡』, (東京, 讀賣新聞社, 1981), p. 174.

켰는데, 제24사단장은 제21연대 1개 대대를 모체로 하여 전투단을 편성하여 전장에 투입했다. 이 부대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다. 제24보병사단은 사령부를 일본 규슈지방의 오키라(小倉)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제19연대는 벳푸(別府), 제21연대는 키타쿠마모토(北熊本), 제34연대는 사세보(佐世保), 포병부대 및 사단직할부대는 카스가(春日), 경찰 전차, 공병부대는 야마구찌(山口)에 있었다. 스미스특수임무부대의 모체부대인 제21연대 1대대가 주둔했던 키타쿠마모토(北熊本)는 현재 육상자위대 제8사단 포병연대 및 사단주요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미 본토에서 증원된 부대는 일본에서 예행연습을 실시한 후에 전장에 투입되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주둔 제3사단도 전장에 투입되기전 사격훈련을 비롯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시모노세키(下關)에 있는 모지(門司)항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들어왔다.

(3) 공군의 출격기지

요시다 수상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주변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한 소련이 일본을 침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이 없으면 소련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미국의 승전보장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기지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비행장은 공군의 발진기지로써, 정비 및 휴양, 탄약 재보급, 의료지원기지로써 최적이었다. 한국전쟁시 대부분의 전투기가 일본 기지에서 발진했다. B-29폭격기는 요코다(横田)기지에서 출동했다. 전쟁물자는 미 본토에서 일본으로 수송, 일본에서는 열차로 비행장까지 운반되었다. 통상 B-29폭격기가 1일 평균 30-40기가 출격했고 출격시는 1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했다.

전투기는 주로 이다츠케(板付), 아시아(芦屋), 츠이키(筑城) 등 규슈(九州)의 기지에서 출동했다. 규슈북부에서 서울까지는 600km로, 당시의 전투

기가 보조탱크를 사용해서 출동할 수 있는 한계거리였다.

이 중에서 최대규모의 발진기지는 오키나와에 위치한 카테나(嘉手納)기지로, 여기서 B-29폭격기가 연일 출격하였다. 일본 본토에서 가장 큰 발진기지는 동경에 위치한 다찌가와(立川)기지로, 이 기지는 구일본군 육군항공대가 사용하던 비행장이었으나 군정기간 중 B-29 등의 대형폭격기와, 물자 및 병력수송용 대형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전천후기지로 개조했다. 이 기지는 요코다(横田)·조후(調布)·이루마(入間), 다마(多摩)탄약고 및 사가미하라(相模原)보급창과 연동하여 폭격기와 대형수송기를 운용하였다. 주변의 탄약고와 보급창에서 트럭으로 다찌가와로 집결, 동경에서 제조한 네이팜탄도 열차로 다찌가와에 집결할 수 있는 연동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집결시킨 폭탄과 보급품을 싣고 전선으로 출동했다. 1951년 11월에는 폭탄을 적재한 B-29가 이륙직후 추락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다찌가와 지역의 주택 100여 채가 큰 피해를 입었다.²⁹⁾

(4) 항만업무

개전초기 한국정부는 미국에 무기 및 탄약지원을 요구했다. 미국은 6월 27일 맥아더에게 일본에 비축된 군수물자 가운데 긴급소요량을 제외하고 한국에 수송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을 받은 GHQ는 예하 기구인 일본상선관리국을 100톤 이상의 일본선박을 관리하면서 철수요원 및 군수품수송을 실시하였다.

일본상선관리국은 일본정부 예하에 설치된 상선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었는데, 이 상선관리위원회는 본래 1942년의 전시해운관리령에 의해 설치되어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송관리 및 통제를 위한 조직이었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능이 재개되었다.

29) 佐佐木隆爾, 『日本の後方支援, 『朝鮮戦争』(下), (東京, 學研, 1999), p. 134.

이 시기에 상선관리위원회 이사장을 지냈던 아리요시(有吉義弥)는 '점령하의 일본해운'이라는 책에서 개전초기의 선박 대부분은 전차 등을 상륙시키는데 사용되는 LST이었는데, 이것은 대형군수기재나 벽지해안에 상륙시키는데 이상적이었으며, 또한 '일본선원들은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지리에 정통하고 있어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미국선원들에게는 정말 필요했다'고 한다.

현재 요코하마에 영구보존 되어 있는 니혼마루(日本丸)도 미군지시로 1950년 8월 17일,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부산, 인천, 제주도를 왕복하면서 군인 및 피난민을 수송했다. 이 활동은 일체비밀이었기 때문에 출항 후에는 무선교신을 금지, 등화관제를 하고 운항하였다. 이들 선박은 교전지역에 운항하는 미군의 지원으로 인명 및 선박안전을 보장받고, 위험지역수당을 받았으며 선주협회는 선박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수송활동을 했다.

GHQ는 개전 4일 후인 6월 29일 선원들의 노동조합 쯔일본선원조합에 대하여 '한반도 및 대만방면에 근무하는 선박은 스트라이크, 사보타지, 방해 등 수송임무에 지장을 주어 작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일체금지하고 위반자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조합에서는 '무력전투에 스스로 참가할 의무를 지닌 것은 아니나, 북한의 第5列的 역할을 하는 일체의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명령을 수용하고, 아울러 위험지역을 향해하는 선원에 대한 안전, 위험수당 지급, 재해수당 등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1주일 후 7월 8일,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령하여 선박관리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서에는 '갑종위험물 중에서 '화약과 '독가스' 취급도 수당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임무수행 중 미군에 의한 발포, 구타 등 폭행행위가 적지 않았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항만노동자 노동조합 쯔일본항만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한국전쟁이 확대되면서 노조활동이 강해지자 감독을 하던 미군병사들의 구타사건을 계기로 각지에서 무기수송 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와 같

은 움직임은 군수물자 수송의 중심지였던 오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요코하마(横浜)에서 극심하여 과혹한 노동, 저임금, 체벌 무기위협 등에 대한 불만으로 노동자들은 지부단위로 스트라이크를 결의하고, 물자적하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운동은 1951년 3월을 시작으로 4월까지 각지로 확산되었다. 임금과 기본급 상향지급으로 해결되었다.³⁰⁾

(5) 소해활동

유엔군은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각 항만에 매설한 기뢰³¹⁾를 제거해야 했다. 한반도 동·서해안 상륙과 반격작전을 위한 군수지원을 위해서도 기뢰제거는 시급했다. 미해군 기뢰정은 대부분 미본토로 철수했고, 극동에는 6척의 소해정 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뢰전을 경험한 병력도 부족했다. 이때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시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고 있었던 78척의 소해정과 1,500명의 소해대원이 있었고, 그 기량과 경험은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원산항에 많은 기뢰가 매설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미해군은 일본소해대를 활용하기로 판단하고 해상보안청장 오오쿠보 야스오(大久保武雄)에게 소해대를 한반도에 출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가 1950년 10월 2일이다. 오오쿠보의 보고를 받은 요시다 수상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델레스 특사와의 강화조약을 교섭하는데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파견에 응했다.³²⁾

30) 위의 책, 『朝鮮戰爭』〈下〉, 學研, pp. 135-136.

31) 소련은 평양과 원산에 機雷戰術교를 개설하여 북한에 대한 기뢰교육을 실시, 특히 원산에는 1950년 8월 1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약 3,000개의 繫維 및 磁氣機雷을 설치했다. 狩野信行, 日本掃海隊の朝鮮戰爭參加, 『軍事史學』通卷 133号, 第34卷 第1号, 1998. 6. 10.

32) 이 글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강제에 의해 출동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1978년 NHK에서 특집방송 「일본특별소해대」을 편집하기 위해 한국전쟁당시 미극동해군 참모부장 어레이 버그(당시 소장, 예비역 대장)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가 자주적으로 협력했고, 소해대원들의 참가여부도 자유의사에 맡겼다'는 중

한반도해역에 파견할 소해대는 구해군 대령출신으로 해상보안청의 항로계 발본부장 다무라(田村久三)를 총지휘관으로 하여 편성했다. 소해모함은 구해군의 항공기 구난정으로 사용하던 해상보안청 6관구(구레 : 吳)소속의 철제, 300톤 '유우찌도리'를, 소해작업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시항선은 같은 6관구 소속의 철제, 6,000톤의 '다이쇼마루(泰昭丸)'을 사용하기로 했다. 소해정은 각 지역관구에서 차출하였는데, 당시 보유하고 있던 100척의 소해정은 구해군에서 사용하던 목조로 건조된 135톤 내지 250톤으로 대잠작전이나 감시활동에 주로 사용했던 함정이었다. 이들 함정을 일본연안에서 소해작업에 사용하다가 전후에는 기뢰소해를 약칭하여 MS(Mine Sweeping)로 칭했다. 한반도 해역에 출동할 특별소해대는 그 중에서 우선 19척을 차출했다. 구레(吳)기지에서 10척, 시모노세키(下關)기지에서 1척, 오사카(大阪)기지에서 3척, 오타루(小樽)기지에서 2척, 나고야(名古屋)기지에서 2척, 니카다(新潟)기지에서 1척 등을 차출했다. 그 후 추가로 2척을 차출하여 4개대로 편성했다. 각대별 척수와 지휘관은, 1번대는 4척으로 야마가미(山上龜三雄, 제7관구 항로계발부장, 구해군중령), 2번대는 5척으로 노세(能勢省吾, 제5관구 항로계발부장, 구해군중령), 3번대는 5척으로 이시도비(石飛瓦, 제9관구 항로계발부장, 구해군중령), 4번대는 7척으로 하기하라(萩原曼四, 제2관구 항로계발부장, 구해군소령)이었다. 각대별로 驅潛特務艇(구해군의 대잠용 135톤) 1척이 순시선으로 배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호칭은 '특별소해대'로 했다.³³⁾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소해대에 미군은 '95-66 부대'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³⁴⁾

특별소해대는 소해대와 시항선으로 구분,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초

언을 종합하면, 당시 일본의 국내정세 즉, 산업폐허, 치안문란, 공산세력에 의한 혁명분위기, 전면강화파와 단독강화파의 극심한 국론분열, 제무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고민한 요시다 정권이 국내여론의 환기와 경제공급을 타개하기 위해 출동해야 했으나 미국이 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3) 能勢省吾, 『朝鮮動亂特別掃海隊』, 私家版, 1961, 防衛大學校所藏, p. 20.

34) 平間洋一, 『朝鮮戰爭に參戰した日本人』, 『朝鮮戰爭』(下), (東京, 學研, 1999), p. 177.

까지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등에서 활동했고, 시항선인 쇼에이마루(桑榮丸)는 1951년 4월 6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 인천,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진해를 대상으로 안전확인을 위한 확인항해를 계속했다.³⁵⁾

특별소해대는 연 7개대, 소해정 44척, 순시선 10척을 파견, 해로 327 km와 정박지 600km를 소해, 27개의 기뢰를 처리했다. 이 활동을 하면서 1척 침몰, 1척 좌초, 1명 사망,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6) 유엔군 투입전 훈련기지

1) 한국군훈련

당시 주일미군은 구일본군이 사용하던 훈련시설을 이용하였다. 개전당시 한국군장교들도 주일미군 실무교육단에서 훈련을 받았다.³⁶⁾

단장 : 신웅균 대령

제1기병사단 백남권 중령, 정진 중령 등 9명

제7사단 김중면 대령, 김형일 중령 등 8명

제25사단 최석 대령, 이후락 중령 외 등 8명

제24사단 오덕준 중령, 이정석 중령, 김기덕 소령 등 8명

이들은 즉시 귀국명령도 내리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실시했다.

단장 신웅균 대령은 1921년생, 일본육사53기, 포병, 오키나와전에 참전,

35) 일본특별소해대는 '95-66부대'라는 부대명칭을 가지고 미군지휘하에서 활동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미해군 한국전사'에는 계약(contract)일본소해정으로 표현, 일본 정부의 요구로 소해활동 대가로 연료, 보급,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억 3698만 1294엔을 받았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일자인 1951년 9월 8일을 기준으로 보면, 주권회복 후에도 소해활동을 실시한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해활동은 해군작전의 일환이다.

36) 佐佐木春隆, 『朝鮮戰爭/韓國編』中, (東京, 原書房, 1997), p. 101.

일본군소령. 한국군 포병창설, 1949년 10월 육본포병감, 포병학교장 중장예편.

김형일 중령은 1923년생, 경성법전졸, 일본학도병, 일본군소위, 중장예편.

오덕준 중령은 1921년생, 칸사이(關西)대학졸, 일본학도병, 일본군소위, 소장예편.

최 석 대령은 1917년생, 와세다대학재학중 학도병, 일본군소위, 소장예편.

백남권 중령은 1922년생, 일본대학재학중 학도병, 일본군소위, 소장예편.

이후락 중령은 1924년생, 학도병으로 일본군소위, 소장예편, 중앙정보부장.

이들의 공통점은 일본에서 공부한 장교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쟁이 유엔군의 경찰행동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군 및 미군, 유엔군에 참가한 그 밖의 군대도 일본에서 훈련이 실시되었다.

2) 미군훈련³⁷⁾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군이 사용한 일본국내 훈련장은 시마마즈(島松), 오오키지하라(王城寺原), 쇼마가하라(相馬ヶ原), 히가시후지(東富士), 아에바노(饗庭野), 신타이아마(信太山), 히노데쇼다이(日出生台), 오오야노하라(大矢野原) 등이다. 오오키지하라(王城寺原)은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군이 접수하여 경비행장, 소총 및 중화기사격장으로, 동북지방에서 위치한 최대의 미육군 훈련장이며 보병, 포병, 통신 등 종합훈련을 실시했고 특히 포병사격훈련에 적합한 장소였다. 1952년 7월 26일 외무성고시 '미일행정협정'으로 미군이 계속 사용하다가 1958년 1월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히가시후지(東富士) 훈련장은 1946년 1월 이후 미군이 훈련장으로 사용하였고, 미군이 주둔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9월 7일, 미군이 토지를 수용하였고, 1952년 4월 27일 미·일평화조약이 발효되고 난 후에도 '미군훈련장'으로 미군이 관리

37) 『日本砲兵史』, 富士學校特科會, 原書房, 1980, pp. 692-749.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는 제1기병사단이 여기서 훈련을 실시했다.

아에노바(饗庭野) 훈련장은 1946년 3월 3일 이후, 미 제5공군, 제8, 제60, 제159포병부대, 제1기병사단 7연대 및 35연대의 포병사격,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되었다. 히노데쇼다이(日出生台) 훈련장은 1946년 6월 15일부터 미군이 접수하여 1957년 10월 6일까지 사용하다가 반환하였다. 특히 이 훈련장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일미군 출동훈련이나 증원부대가 이곳에서 최종훈련을 실시했다.

오오야노하라(大矢野原) 훈련장은 1945년 9월 20일 미군이 접수하여 1957년 4월 8일까지 사용하고 반환했다. 이 훈련장도 한반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전쟁 기간중 중요한 훈련장이었다. 쇼마가하라(相馬ヶ原) 훈련장은 주로 전차, 포병사격장으로 사용했다.

(7) 군수기지 역할

1) 한국전쟁시 미군의 군수상황³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6월 27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예비역소집(주방위군 장교 2만, 병 29만, 25개 보병사단, 2개 기갑사단)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어서 6월 30일, 하원에서 주방위군 소집, 예비역장교 21개월간 소집을 결의했다. 트루먼은 현역병을 1951년 7월까지 복무연장을 위한 법률99호에 서명했다. 7월 1일부터 軍海上輸送業務(MSTS :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를 시작하여, 7월 4일에는 부산에 군수기지대를 설치했다.

7월 6일, 미대통령은 육군을 63만에서 68만으로 증원하도록 명하고, 7월 10일까지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동경에서 맥아더와 회담을 갖고 주일 4개

38) James A. Huston, Gun and Butter, Power and Rice,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89, p. 40, p. 49.

사단 충원과 육군 1개 사단, 1개 연대전투단, 해병 1개 사단을 증원하기로 했다.

7월 13일에는 부산군수기지대를 군수사령부로 승격시키고, 7월 25일 극동군 군수부장은 전부대에 소요되는 동계장비수송을 요청했다. 8월 10일 주방위군 4개 사단을 현역으로 편입시키고, 8월 25일 요코하마(横浜)에 일본군수사령부를 설치했다. 9월 8일에 미대통령은 방위생산법에 서명하고 군수산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9월 16일 인천에 제3군수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부산군수기지사령부는 제2군수지원사령부로 개명했다. 10월 하순, 원산상륙작전 및 반격작전시 인천의 제3군수지원사령부를 부산의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배속시켜 군수지원을 통합했다.

11월 하순부터 12월에 걸쳐,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긴박해지자 미군은 인천, 원산, 흥남, 진남포에 있는 군수시설을 파괴하고 철수했다.

12월 16일, 미대통령은 비상사태(State of 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하여, 동원국을 신설하고 18개 사단 135만명 동원을 계획했다. 12월말, 미 육군 병력은 1,073,498명 이었다. 1951년 6월에는 징병대상 및 복무기간을 19세, 21개월에서 18세, 24개월로 확대했다.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고, 8월 15일 미합동참모본부는 육군 21개 사단, 18개 연대, 117개 고사포 대대를 유지했다.

전쟁기간 중 미군은 3만명의 군수요원으로 약 80만명의 유엔군, 한국군, 포로, 주민들을 지원했다. 1952년 10월말, 요코하마에 위치한 일본군수사령부 및 부산의 제2군수사령부를 제8군에 이관시켜, 오끼나와에 위치한 마키미나토(牧港)에 제2군수사령부를 설치했다. 1972년 오끼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 전까지 군수지원을 실시했다. 한국전쟁기간 3년간, 유엔군병력은 대부분이 한국군 및 미군이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타국의 병력은 10% 정도였다. 이들 파견병력에 대해서도 군수지원의 대부분은 미군이 지원했다.

1952년 6월 현재 주한유엔군 병력은 다음과 같았다.³⁹⁾

КСІ

39) *ibid.*, p. 148.

미육군 230,000	미해병대(陸) 27,000	미해병대(空) 5,800	
미해군(陸上) 600	미공군 35,000	<u>계 300,215</u>	
유엔군(陸) 35,000	유엔군(空) 11,000	<u>계 36,100</u>	
한국육군 320,000	한국해군 25,000	한국공군 5,400	<u>계 351,200</u>
카츄사 8,200	<u>위의 주한육상요원 계 695,715</u>		
미육군배속 한국경찰 및 철도경찰 8,000	한국군수부대 75,000		
민간인억류자 36,500	포로 133,566	미국 및 유엔민간요원 600	
미국사절단 50	<u>군인의 인원 계 253,716</u>		
※ <u>주한인원 총계 949,431</u>			

극동해군(한국지역외) 206,121(일본에 139,720, 오키나와에 24,608,
마리아나 및 오가사하라에 373, 필리핀에 315)

※ 주한인원을 포함한 극동인원 1,155,552

2) 한국전쟁시 일본의 군수지원

가. 점령기지에서 전시지원체제로 전환

1945년에 미 제6군 및 제8군이 일본점령임무를 시작하면서 육군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rnet : ASCOM-C)를 요코하마에 본부를 설치하여 제8군을 지원하였고, 육군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 Olympic : ASCOM-O)를 고베(神戸)에 본부를 설치하여 제6군을 지원하였다.⁴⁰⁾ 1946년 1월 고베의 ASCOM-C는 고베기지대(kobe Base)로, 요코하마의 ASCOM-C는 일본군수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로 전환되었다. 1951년 6월, 일본의 주요보급시설을 동경(東京), 요코하마(横浜), 코시엔(甲子園)의 병기창과 전국에 14개소의 예하 탄약기지가 있었다. 또한 동경 군수보급창, 고베 군수보급창, 요코하마 시설보급창, 요코하마 통신보급창, 요코하마 수송보급창, 위생보급창, 화학보급창이 있었다. 이들 보급창에는 80만종의 품목을 보관하고 있었다.⁴¹⁾

40) Gun and Butter, Power and Rice.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War, p. 147.

한국전쟁 3년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송된 육군보급품 총량은 육군 초도 장비품으로 1,139,506톤, 재보급으로 1종(식량) 2,637,863, 2·4종(피복 및 공사자재) 9,304,346톤, 3종(유류) 1,653,443, 5종(탄약) 1,873,670톤 등, 계 31,489,838톤이었다.⁴²⁾ 당시 보급품은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었다.

1950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미국과 일본에서 수송된 미 육군 보급량은⁴³⁾ <표 1>과 같으며 일본에서 수송된 보급량이 전체의 76%였다.

<표 1> 미국과 일본에서 수송된 미육군 보급량(1950. 9~51. 3)

종 별	계	일본에서		미국에서	
		M / T	%	M / T	%
무기 제Ⅱ종(차량)	476,973	350,685	73.6	126,288	26.4
무기 제Ⅱ종(차량제외)	241,596	208,969	86.5	32,627	13.5
무기 제Ⅴ종(탄약)	172,446	88,106	51.1	84,340	48.9
보급 제Ⅰ종(식량)	336,525	251,465	74.7	85,060	25.3
보급 제Ⅲ종(패키지)	266,769	179,368	67.2	87,401	32.8
보급 제Ⅱ, Ⅳ종	160,409	115,003	71.7	45,406	28.3
시설 제Ⅱ종(기술)	33,459	26,775	80.0	6,684	20.0
시설 제Ⅱ, Ⅳ종(차량제외)	213,827	199,490	93.3	14,337	6.7
시설(식단)	78,887	78,887	100.0	0	0
시설(민간인구호)	38,164	38,164	100.0	0	0
통신 제Ⅱ, Ⅳ종	56,906	34,168	60.0	22,738	40.0
의무 제Ⅱ, Ⅳ종	10,001	8,309	83.1	1,692	16.9
수송 제Ⅱ, Ⅳ종	9,556	7,226	75.6	2,330	24.4
화학 제Ⅱ, Ⅳ종	4,296	1,480	34.5	2,811	65.5
화학 제Ⅴ종	448	448	91.6	38	8.4
특별품목	603	578	95.9	25	4.1
일본중앙교환	23,065	23,065	100.0	0	0
총 계	2,123,925	1,612,148	75.9	511,777	24.1

주 : * M/T=1,000kg

41) ibid, p. 148.

42) ibid, p. 118.

43) ibid, p. 119.

나. 군수품 보급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1950년 7월 1일부터 1951년 8월 30일까지 군수물자 300만 달러를 보급 및 수리했다. 제8군은 의료, 섬유제품, 상륙용 그물, 구명복, 마닐라로프 등과 목재, 채석, 파레트(화물수송용 깔판), 사포, 염화화합물, 휘발유통, 오일통, 가스킷 등을 일본에서 구입했다.⁴⁴⁾

다. 무기 및 탄약 보급

1950년 가을부터 1951년 겨울까지 미 제8군 보고서에 의하면 기관총의 평균 전투소모는 6개 사단이 1개월당 약12.5%, 자동소총은 9.8%, 60 미리와 81미리 박격포는 10.3%, 소총 및 칼빈은 1.8%였다.⁴⁵⁾

주일점령군이 소유했던 경전차 M-24(20톤, 70미리포)는 소련제 T-34(35톤, 85미리포)에 비해 열세했다. 제8군의 전차 재고는 M-4A3(35톤, 76미리포)15대, M-26(46톤, 90미리포)3대, 경전차 M-24 103대가 전부였다. 미본토에 있는 M-4A3 54대를 2개월 후에 수송 가능했고, 대전차탄이 전장에 도착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10월 1일까지 전차 1,253대(M-26 : 309대, M-4A3 : 616대, M-46 : 200대, M-24 : 128대)를 일본으로 긴급수송했다. 이 중에서 90미리포를 탑재한 M-46전차가 성능이 가장 우수했다. 첫째 787 대를 수송하여 일본차량 공장에서 정비했다.⁴⁶⁾

1950년 7월 4일, 제8군의 요구로 3주간에 걸쳐 동경일대에서 전차 1개 중대를 편성하여 M-4A3 서면전차로 개수하여 한국에 수송되었다. 그 후 3주간에 걸쳐 서면전차 17대를 다시 전장에 투입했다. 그 후 다시 76 미리포를 탑재한 나머지 31대도 전장에 투입하였다. 동경병기창에서는 75 미리포를 76미리 고속포로 개수했다. 이들 전차는 제2단계 정비를 위하여 일본으

44) Gun and Butter, Powder and Rice.,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War, pp. 143-144.

45) *ibid.*, p. 130.

46) *ibid.*, pp. 175-179.

로 철수하여 개수후 전장에 투입되었다. 105밀리 자주포를 사각 33.5 도에서 67도까지 개량하였고 M-15A1 장갑차에 탑재한 37밀리포를 40밀리포로 바꾸었다.

7월 13일~31일 사이, 제8군은 전장에서 군수지원용 트럭이 부족하여 트럭 1,000대, 147만 5,000달러의 긴급조달을 일본에 요청했다. 1950년 8월부터 1951년 8월까지 46,000대의 차량생산을 계획했으나 한국 및 미군소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폭파용 다이내마이트와 신관용 화약 5만개를 보급하였으며, 대인지뢰용 목재상자, 휘발류통, 오일통, 가스켓, 플러그 등도 일본에서 구입했다.⁴⁷⁾

라. 정 비

일본본토와 태평양에 위치한 섬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했던 대량의 재고자재를 일본의 노동력과 시설을 이용해서 재생했다.⁴⁸⁾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4개월 동안 일본에서 소화기 489,000정, 화포 1,418문, 사격지휘장치 34,316정, 전투차량 743대, 일반차량 15,000대를 재생했다.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 및 동경일대에는 1951년 중반까지 63,000대의 차량과 부품이 집결되었다.⁴⁹⁾ 1951년 5월에는 3만명의 일본노동자가 미국방성에서 파견된 병기장교 50명과 민간기술자 200명의 감독하에 병기장에서 근무했다.

1950년 초반기에는 재생차량이 3,000대에 불과했으나, 후반기에는 28,000대로 급증했다. 1952년 5월 1일까지 일본에서 일반차량 재생은 98,831대 이르렀고 휴전교섭기인 1953년 6월 30일에는 148,000대까지 증가했다. 1952년 중반까지 전장에서 하던 포병장비 60%, 보병장비 71%, 전차 41%를 동경

47) Monograph Logistical Problem and Their Solutions Part 3, pp. 12-15.

48) Gun and butter, powder and rice.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War, p. 137.

49) *ibid.*, pp. 138-139.

에서 개량했다. 1952년 5월까지 전투차량 3,000 대 이상을 일본에서 재생했다.

마. 화생방장비 보급

일본에서 1951년에는 1일 1,000개의 방독면을 제작했다. 엔진제독기 제작, 1951년 6월10일에서 1952년 4월 30 일까지 방독면수리 26 만개, 엔진제독기 99개, 제독기 8,485 대, 화염방사기 579 대, 발연장치 206 대, 방진마스크 45,905, 방독면 방수킷 등 74,424 개 품목 화학자재 대부분이 화학보급창에서 제작됐다.

바. 의무지원

1950년 주일의무요원은 장교 318, 치과 95, 의무지원 309, 육군간호원 452, 수의 15, 여성의무전문 31, 병 5,868, 여군 161 명 이었다.⁵⁰⁾

1950년 8월 주한미육군 의무부대는 다음과 같다.⁵¹⁾

제8군 :

제 8055 이동외과병원, 제 8063 이동외과병원, 제 8076 이동외과병원, 제 171 후송병원, 반이동식 제 8054 후송병원, 반이동식 제 64야전병원, 제 6 육군의무보급소, 제 8065 육군의무보급소, 제 38말라리아분견대, 제 207말라리아조사대, 제 66수의식물조사분견대, 제 95수의식물조사분견대, 제 476수의식물조사분견대, 제 461치과보철분견대, 제 52의무대대, 제 567의무구급중대, 제 514의무후송중대

제10군단 :

제 1이동외과병원, 제 121후송병원, 반이동식 제 4야전병원, 제 16육군의무보급소, 전진소대, 수혈반, 제 150수의식물조사분견대, 제 163의무대대, 제 559의무구급중대, 제 560의무구급대, 제 618의무후송중대, 제 421의무중대

1950년 9월, 주한미군 의무후송계통은 대대구호소에서 연대구호소, 사단

50) Albert E. Cowdrey, *The Medic's war*,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7, p. 68.

51) *Gun and butter, powder and rice*. U.S. Army logistics in the Korean War, p. 99.

의무대, 후송병원(부산), 비행장(한국), 이동외과병원, 제118병원(후쿠오카), 그 밖의 주일육군병원, 국제공항(하네다), 육군병원(하와이), 트라비스공군 기지(캘리포니아), 미본토 국내병원 경로를 이용했다.⁵²⁾

한국전쟁 당시 일본에 위치했던 유엔군 야전병원은 14개소였다. 이 중에서 구레(呉) 기지에 위치했던 구해군병원은 영연방군의 종합병원으로 사용되었다. 후쿠오카(福岡)의 구육군병원을 재건하여 제1 유엔군 후송병원으로 사용하였다. 주일유엔군 야전병원은 대부분이 파견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에 의해 부상병을 치료했으나, 유엔군 후방병원에는 큐슈(九州) 지역 7개현의 일본적십자 지부의 간호사들이 파견되었다.

1950년 12월부터 간호사파견이 시작되었는데, 1952년 6월 2일부 중의원 후생위원회에 대하여 공산당의원 카리다(刈田)가 질문하면서 1차 파견 54명, 2차 파견 25명, 3차 파견 17명, 질문시점에는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일본적십자사의 외사고문을 지낸 니나가와(蜷川)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 후 마이니찌신문(毎日新聞)은 1950년 12월 11일 사가시(佐賀市)회의실에서 간호사 16명을 파견하는 의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간호사 파견은 외부에 발표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는 일본적십자 부사장으로부터 암호전보가 있었다고 하였다.

<표 2> 주일유엔군 야전병원 현황

지역	병원	지역	병원
삿포르(札幌)	電通局	나고야(名古屋)	通信局
센다이(仙台)	簡易保險局	교토(京都)	日赤病院
니카타(新潟)	鐵道病院	오오사카(大阪)	日赤病院
동경(東京)	大東亞病院	사카이(堺)	信太山日陸軍兵舎
	簡易保險局	구레(呉)	旧海軍病院
요코하마(横浜)	松屋	하카다(博多)	簡易保險局
	大島國民學校	사세보(佐世保)	旧海軍病院

52) ibid, p. 151.

이들 간호사 파견요청은 일본적십자사에 의한 전시소집영장과 같은 것으로, 동원된 간호사들에게 비밀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⁵³⁾

3) 한국전쟁 특수(特需)⁵⁴⁾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경제는 급속하게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5년간의 주요물자 계약고를 순서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전쟁 1~2년차는 자동차 품목과 섬유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3년차(1952년)부터는 병기품목이 으뜸을 차지했으며, 석탄은 전쟁 2년차부터 계속 두 번째 수요를 차지했다.

전쟁특수 년도별 계약고 추이는 <표 4>와 같다.

<표 3> 주요 물자별, 연도별 수요 순서

순 위	1950	1951	1952	1953	1954
1	트럭	자동차부품	병기	병기	병기
2	면포	석탄	석탄	석탄	석탄
3	모포	면포	마대	식료품	식료품
4	건축자재	드림통	철도망	가구	가구
5	마대	마대	시멘트	건전지	시멘트

<표 4> 연도별 계약고 추이

(단위 : 만불)

구분	1950	1951	1952	1953	1954
물자	22,990	23,585	30,554	12,479	7,857
서비스	9,892	7,976	18,678	17,091	10,774
계	32,882	31,561	49,232	29,570	18,625

※ 5년 동안 물자 97,460, 서비스 64,412, 계 161,873

53) 위의 책, 『朝鮮戰爭』〈下〉, 學研, 1999, p. 138.

54) 有澤廣巳, 稻葉秀三, 『資料 戰後20年史』, (東京, 日本評論社, 1966), p. 163.

<표 5> 주요물자별 및 서비스 계약 누계

(단위 : 만불)

순 위	물 자	서 비 스
1	병기 14,849	건물건설 10,764
2	석탄 10,438	자동차수리 8,303
3	마대 3,370	하역,창고 7,592
4	자동차부품 3,110	전신전화 7,121
5	면포 2,956	기계수리 4,821

서비스도 전쟁초기에는 수송 및 자동차수리가 수요우위를 차지했고, 전쟁 3년차부터 건설분야가 우위를 차지했으며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이후부터는 전신전화 분야가 으뜸을 차지하였고 기계·병기수리, 항공기수리도 증대하였다. 전쟁특수가 시작된 이래 5년간의 주요물자 및 서비스계약 누계는 <표 5>와 같다.

4) 항공생산 재개

미 군정기간 중 해체되었던 항공산업이 한국전쟁 특수를 계기로 부활하였다. 미군은 공중폭격이 확대됨에 따라 네이팜탄, 낙하연료용 탱크를 新明和産業, 富士工業, 新三菱重工業, 川崎機械에 발주하였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1952년7월, 경연락기(세스나) 분해 및 수리는 昭和飛行機에서, 1953년 1월에는 F-51 전투기 수리를 川崎航空機에서, 1953년 6월에는 B-26과 C-46 수리는 新三菱重工業에서, 함재기수리는 日本飛行機에서 각각 수주하였다.

그밖에도 엔진덮개, 계기, 보조기계, 통신기재 등 수리계약을 맺었다. 1954년에는 소련제 미그15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된 F-86 전투기 및 T-33 연습기 기체와 엔진 분해수리 계약을 新三菱重工業, 川崎航空機와 맺었다.

이와 같은 항공분야 수리 특수 계약은 1953년에 164만불, 1954년에 559만불이나 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공업력 동원없이도 미군이 유엔군의 장기

적인 공폭작전이나 물자·병력수송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⁵⁵⁾

5) 일본 병기생산 개시

GHQ에서 1952년 3월 14일 ‘병기생산금지 완화 각서’를 발표했다. 그 요점은 1945년 9월 22일부터 GHQ지령 제3호제4조1항에서 무기·탄약·전쟁용품목에 대하여 “생산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GHQ 허가 없이는 생산을 허가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GHQ승인하에 병기생산시설을 가동시켰다.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① 무기·탄약 또는 전쟁용구
- ② 무기·탄약 또는 전쟁용구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설계 또는 생산하는 부품, 조립품 혹은 구성품
- ③ 전투용 해운함정
- ④ 민간용으로 설계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항공기
- ⑤ 모든 형태의 항공기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설계 또는 생산하는 부품, 조립품 및 재료

1952년 10월 5일 일본통산성이 발표한 ‘일본병기 생산능력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⁵⁶⁾

가. 기관총

제조회사 10개사 (日本製鋼所, 日平産業, 豊和工業, 豊田自動織機, 新中央工業, 新愛知時計, 日立工機, 日本特殊鋼, 壽工業, 파인미싱)

정비후 생산능력 (月생산)		정비 소요자금
7.7mm	5,500 정	119,570만엔
12.7mm	3,300 정	112,310만엔
20mm	2,175 정	128,100만엔

(8개월후 생산개시가능, 4개월 이후 최고생산가능)

55) 위의 책, 『朝鮮戰爭』(下), 學研, 1999, p. 138.

56) 有澤廣巳, 稻葉秀三, 『資料 戰後20年史』, (東京, 日本評論社, 1966), p. 166.

나. 소총 및 권총

제조회사 3개사(豊和産業, 新中央工業, 宝수퍼)

정비후 생산능력(월생산)	정비 소요자금
9,000정	2,500만엔

다. 총 탄

제조회사(大隈鐵工所, 日平産業, 昭和金屬産業, 東京螺子, 大阪金屬工業, 日本冶金)

정비후 생산능력(월생산)	정비 소요자금
7.7mm 10,000,000개	114,200만엔
12.7mm 2,825,000개	
20mm 1,050,000개	

라. 포 탄

제조회사 10개사(住友金屬工業, 大阪金屬工業, 神戸製鋼所, 日本製鋼所, 小松製作所, 新大同製鋼, 日立重機, 大和金屬工業, 佐世保船舶工業, 豊和工業)

정비후 생산능력(월생산)	정비 소요자금
50 - 80mm 717,000개	계 32,900만엔
80 - 150mm 327,000개	

(준비기간 약 3개월)

마. 약 실

제조회사 5개사(神鋼金屬工業, 大阪金屬工業, 富士車兩, 東京螺子, 松下電工)

정비후 생산능력(월생산) : 80,900개

바. 화 포

구일본군시대의 육군은 제 1육군조병창, 오오사카(大阪) 육군조병창, 오

쿠라(小倉) 육군조병창에서, 해군은 구레(呉), 사세보(佐世保), 다이즈루(舞鶴)의 해군공장에서 제작했으나, 민간회사로는 神戸製鋼所, 日本製鋼所를 비롯하여 그 외 12개 회사가 있었다.

종 류	잉여능력	최대능력
박 격 포(81mm)	598문	933문
대전차포(47mm)	99문	175문
야 포(105mm)	45문	70문
바 추 카	1,200문	2,600문

사. 광학병기

제조회사는 23개사가 있었다

종 류	잉여능력	최대능력
조 준 기	2,892개	9,898개
대공만원경	45개	400개
측 거 의	15개	80개

6) 기타조달

가. 시설공사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1951년도의 공사조달 실태는 다음과 같다.⁵⁷⁾

- 군수물자조달, 작전활동을 위한 군수기지로 일본을 이용함으로써 운영유지를 위한 조달 업무가 활성화되었다.
- 전략물자나 한국에 필요한 민생물자를 미군이 特需 형태로 발주했다.
- 1950년 8월 25일, 주일군수사령부(JLC)를 요코하마에 설치하고, 다시 1951년 11월 4일에 조달본부(JPA)로 개편하여 特需 업무를 실시했다.
- 당시 1억엔 이상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57) 調達廳總務課編, 『占領軍調達』Ⅲ, 1976, p. 247.

- 비행장 및 활주로공사: 千歲, 八雲, 三澤, 新潟, 木更津, 横田, 厚木, 追浜, 美保, 板付
- 병 원: 西戶山崎
- 항만시설: 佐世保

- 쓰시마(對馬)의 공군시설공사
- 쓰이키(筑城)의 스틸메트 활주로공사
- 1951년 4월, 미 캘리포니아 제 40사단, 제 45 오클라호마주 사단이 일본점령을 위해 도착. 홋카이도(北海島) 및 도호큐(東北)에 주둔시설공사, 이 사단들은 1952년 한국에 증원.

나. 기타 후방지원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후방지원활동을 실시했다.

- | | |
|-----------------------------|---------------|
| · 보급(각종보급품 획득, 분배, 처리) 및 생산 | · 교통 및 수송 |
| · 정비 및 회수 | · 건설 및 부동산 |
| · 위생(치료 및 후송) | · 사망자시체 등의 처리 |
| · 역무 및 노무 | |

(8) 경찰예비대 창설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1)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과 전환

일본이 항복한 후 미국의 점령정책은 일본을 영구히 비무장 국가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은 다음과 같다.⁵⁸⁾

- ① 일본은 두 번 다시 미국의 위협이 되거나 세계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한다.
- ② 일본은 완전히 무장해제하여 비군사화 시킨다. 육·해·공군·비밀경

58) 鹿島平和研究所,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1)』, (東京, 原書房, 1983). p. 81.

찰조직 및 민간항공도 보유할 수 없다.

- ③ 군사력의 경제기반을 파괴하여 재건을 허용하지 않는다. 군대 및 군사시설, 장비, 유지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물자생산을 금지한다. 전쟁준비에 관련된 특정산업 및 생산부문을 제거한다.
- ④ 전쟁수행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 및 교육을 금지한다.
- ⑤ 비군사화 목적에 필요한 상선을 제한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점령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극동에서의 공산주의 방파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주도하에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일본에 재무장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재무장을 거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전쟁후유증으로, 재무장을 요구하면 국민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미주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을 설득, 방위비를 절약하여 경제부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② 구일본군의 치졸한 전략에 의해 국가가 패망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전후 反軍輿論이 팽배해 있었다.⁵⁹⁾ 이처럼 국민여론이 재무장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재무장 요구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한국전쟁에서 UN요구에 따라 군수지원 업무를 실시했다. 한편 맥아더는 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했다. 경찰예비대는 주일 미점령군을 한국전에 투입함에 따라 일본국내의 치안유지와 '소련의 일본침략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맥아더의 주일미군은 '일본점령정책' 수행이 주임무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발발로 주일점령군을 투입에 따른 일본의 방위를 위해 경찰예비대 창설은 급선무였다.

2) 경찰예비대 창설⁶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주일미군 제24사단이 한국전에 최초 투입하였고,

59) 藤井 久, 朝鮮戰爭50年, 『軍事研究』, 2000. 6, p. 118.

60) 『日本再軍備』, p. 12.

이어서 7월 18일 제25사단, 제1기병사단이 투입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3주일 후, 소련에 대비하여 홋카이도에 주둔하던 제7사단이 투입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수개월내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은 원자폭탄은 있었으나 지상군 예비병력은 부족했다.

맥아더로서는 대외침략과 일본 국내 사회소요로부터 일본정부를 지키고, 주일미군기지를 방어할 수 있는 지상군이 없었다. 일본은 이미 무장해제된 상태였고, 군함, 항공기, 전차, 화포, 기관총, 소총 등 전쟁물자를 완전하게 처리한 상황이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⁶¹⁾

- ①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 ② 잔여미군으로 극동군사령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달성할 수 없다.
- ③ 일본경찰은 국가경찰 3만, 지방경찰 9만 5천명이 권총을 가지고 있으나, 기타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미군 4개 사단을 대신할 병력없이 일본치안 및 질서유지가 불가능하다.
- ④ 일본경찰은 파괴행위, 중요군사시설에 대한 경비능력이 없다.
- ⑤ 일본 군대는 해체되었고 헌법에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무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 맥아더는 신년 성명에서 일본의 자위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 ⑥ 일본의 재군비는 국내외에 파문을 초래하므로 비밀계획으로 실시해야 한다.

맥아더는 위와 같이 일본의 재군비를 추진했다. 이것은 포츠담 국제협정을 위반한 사항이었으며 극동위원회 훈령을 모독했으며 일본평화헌법에도 저해되는 결심이었다. 맥아더는 일본수상 요시다에게 1950년 7월 8일 서한을 보냈다. “일본이 국가경찰예비대 75,000명을 창설하고, 현재의 해상보안청은 8,000명을 증원할 것을 승인한다”고 했다.

7월 14일 맥아더 사령부에서 다음과 같이 ‘경찰예비대 창설 계획’을 하달했다.

61) 위의 책, 『再軍備の軌跡』, p. 420.

- ① 75,000명의 경찰예비대는 15,000명의 보병형 사단 4개 사단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
- ② 미군의 30구경 칼빈소총을 장비시킨 후 경기관총, 총기관총, 박격포, 로켓트 발사기, 경전차, 105mm 유탄포, 기타 미군 보병사단의 표준장비를 추가 지급한다.
- ③ 최초 6개월간의 유지예산은 184억 500만엔, 이것을 1950년도 일본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 ④ 경찰예비대 모집 및 선발완료는 1950년 9월 15일이다

한국전쟁기간 중 경찰예비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⁶²⁾

- ① 전후 (WWII) 일본 국내의 폭력혁명을 관리
- ② 주일 미지상군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동지원
- ③ 주일미군의 육·해·공군기지, 병참기지 및 군인가족 안전에 기여
- ④ 소련전략은 방위의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한국전쟁간 홋카이도를 비롯한 주변 섬에 대한 소련의 침략을 방지

일본은 국내 폭력혁명과 외부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대가 필요했고, 미국은 주일미군기지 경계와 군인가족보호를 위해 예비대가 필요했다. 평화헌법의 기본을 위법하여 창설된 경찰예비대는 지금의 육상자위대의 근간이 되었다. 경찰예비대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일본이 패전이후 한국전쟁으로 미일동맹의 기원을 여는 계기가 된 셈이다.

(9) 일본경제 도약의 계기

일본이 패전후 1946년부터 한국전이 끝나는 1953년까지 국민 총생산을 보면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가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62) 위의 책, 『日本再軍備』, p. 197.

1946년	4,740 억엔	전년대비+%
1947년	13,080 억엔	176%
1948년	26,660 억엔	100%
1949년	33,750 억엔	26%
1950년	39,460 억엔	17%
1951년	54,440 억엔	38%
1952년	61,180 억엔	12%
1953년	70,840 억엔	15%

위의 통계에서 패전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간의 국민총생산액 누계는 78,230억엔, 한국전쟁발발해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4년간의 누계 225,920억엔으로, 한국전쟁을 前後하여 비교하면 약 3배 성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⁶³⁾ 그야말로 패전으로 허덕이던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4.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대응과 그에 따른 유엔군에 대한 협력내용을 살펴보았다. 태평양전쟁의 法理的 종결(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treaty of peace)이 체결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과 계획된 강화조약을 연기하면서 일본군을 재무장 내지는 의용군으로 한반도에 투입하려고 했다. 일본은 戰後 산재된 국내문제 즉, 좌우익의 극한 대결, 경제궁핍, 강화조약에 따른 충돌 등을 미국주도의 유엔군에 편승(bandwagon)하여 早期·多數講和를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63) 위의 책, 『資料 戰後20年史』, p. 500.

일본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1950년 8월 16일에 외교백서로 발표했는데, 이 시기가 전쟁발발 후 6주째로 戰況은 포항-다부동-대구-마산을 연하는 선에서 남한의 全領土를 북한이 장악하기 직전의 위기였다.

이 외교백서를 통하여 단순히 남북한 內戰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의 공산진영(소·중·북한·日共)과 자유진영과의 전쟁으로 해석 이 전쟁을 남한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차후의 공격목표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도 思想戰에서 한국전쟁의 戰場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을 직접 지원한다는 것은 국내여론 측면에서 整合性이 부족하고 또한 한국을 직접 지원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유엔에 대한 협력을 명분으로 미국을 지원했다.

일본의 유엔군에 대한 협력사항은 유엔군의 훈련 및 출격기지·군수기지, 항만 및 해상수송업무, 소해활동, 각종 군수지원 등으로 병기생산까지 재개하면서 일종의 한국전쟁 特需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듯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 대한 협력항목은 1997년 9월 23일 미·일안보협의회에서 승인한 新가이드라인에서의 주변사태 발생시 미·일간의 협력항목과 비교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유엔에 대한 협력관계는 교훈이 될 것이다. 오히려 한국전쟁 당시의 경우가 新가이드라인에 비하여 주권이 없었던 일본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있다.⁶⁴⁾

그러나 일본을 재무장하여 전쟁에 투입하려던 제안들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공산권에서는 남침계획을 준비하면서 한국전쟁에 일본군의 개입가능성을 예측했다. 최근 밝혀진 舊소련의 문서에 나타난 몇 가지만 언급한다.

64) 국방정보본부, 『일본방위백서』, 1998, pp. 192-193. “주변사태시 협력대상이 되는 기능과 분야 및 협력항목”에서 40개의 협력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후방지역지원의 ‘보급’에서는 무기·탄약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국전쟁 당시에는 무기, 탄약은 물론 폭발물까지 수송하였으며, 작전면의 미·일협력 항목인 ‘기뢰제거’에서는 일본영역과 일본 주변 공해에서 기뢰제거를 하게 되어있으나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반도 영해까지 들어와서 소해활동을 실시했다.

1949년 8월 27일 북한주재 소련대사 쉬티코프는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스탈린에게 제출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군사행동을 개시하면 미국은 남한에 대하여 단순히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남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군을 파견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이 분명하다”⁶⁵⁾는 판단이었다.

1949년 5월 1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소련공산당 대표 코와료프도 스탈린에게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군이 대신 들어와 남한과 함께 북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⁶⁶⁾는 보고를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개월전 1950년 5월 15일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일본군이 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일성은 미국이 2만에서 3만명의 일본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⁶⁷⁾ 했으며, 아울러 모택동은 “일본군이 개입하여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⁶⁸⁾는 등에서와 같이 일본군의 개입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일본군이 미군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까지 했다. 이것은 동북아의 역사적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일본군이 개입되었더라면 과거 역사의 再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나 미래의 한반도 유사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의 냉전은 종결되었으나 세계의 冷戰이 熱戰으로 발화되었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북한간에 화해협력의 단계에 들어서긴 했으나

65) 쉬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1949년 8월 27일). 문서군 3, 목록 65, 문서 775, pp. 112~114.

上記는 Anatoly Vasilievich Torkunov, 『Zagadochnaya Voina : Koreiskii Konflikt 1950~1953 godov』, (Ross pen, 2000), p. 32에서 인용한 것임.

66) 코바료프 중국주재 소련공산당 대표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전문(1949년 5월 18일). 소련군 참모본부 정보총국 제54611호 암호전문. 문서군 45, 목록 1, 문서 346, pp. 59-61. 위의 책, p. 56에서 인용.

67) 로시친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년 5월 15일). 문서군 45, 목록 1, 문서 331, pp. 57~59. 위의 책, p. 69에서 인용.

68) 로시친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년 5월 16일). 문서군 45, 목록 1, 문서 331, pp. 60~61. 위의 책, p. 113.

‘停戰’이지 ‘戰爭終結’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지도는 계속되고 있다. 전쟁지도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전쟁목적의 달성과고자 국가총력을 조직화하여 戰勝 획득에 집중시키는 지도역량과 기술’이다.⁶⁹⁾ 국가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정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보 수단⁷⁰⁾이나 기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 ① 개별국가에 의한 自衛 (self-defense)
- ② 동맹관계 (alliances)
- ③ 지역기구 (regional organizations)
- ④ 유엔 (United Nations)
- ⑤ 외국군 주둔 (Host Nation)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국은 스스로의 자체방위능력 (self-defense)은 없었고, 동맹관계 (alliances)도 없었다. 1950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방위원조협정’⁷¹⁾은 유엔에 의해 최초로 탄생한 신생 한국이 스스로 방위 (self-defense) 할 수 있도록 유엔헌장 정신에 의해 援助를 한다는 협정이지만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의 방위 책임을 지겠다는 조약이 아니다. 유럽의 집단방위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같이 동북아조약기구 (NEATO)나 태평양조약기구 (PaTO)도 존재하지 않았다.⁷²⁾ 또한 우리의 방위를 책임지고 협약된 외국군도 주둔하지 않았다.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은 집단안보기구이긴 하나 무력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엔의 군대가 없었다.⁷³⁾ 이러

69) 김행복, 『한국전쟁의 전쟁지도』, 국방군사연구소, 1999, p. 4.

70) The Changing Face of Peacekeeping, The Lester B. Pearson Canadian International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2000, 11, p. 7.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1981, p. 64.

72)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I』, 박영사, 1992, pp. 600-603. 1949년 4월 NATO가 결성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아·태조약기구 (Asian and Pacific Treaty Organization : APATO)의 창설을 미국에 제의했으나 미국이 이 구상을 반대했다. 논자가 언급한 NEATO나 PaTO는 가상 지역기구를 一例로 제시한 것이다.

73)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서는 집단안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47 조에서는 군사참모위원회를 설치하

한 상황에서 전쟁은 일어났고 평화는 순간에 깨어지고 말았다.

일본과의 역사적 악연 때문에 일본의 지원은 바라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지원에 나서면 북한과 공조하여 일본부터 격퇴해야 한다'⁷⁴⁾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일본 역시 당시의 情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에 협력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 시켰다고 할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유엔은 전쟁을 지도하기 위하여 동경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휴전 이후 유엔군의 임무전환에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에 동경에서 서울로 이동하였으나, UN-일본간 SOFA(행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창설, 일본 자마(座間)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유엔사 후방지휘소는 유엔사의 예하부대로 유엔-일본간의 SOFA협정유지와 유엔사와 관련된 인원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처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 후방지휘소에는 미군 대령 1명과 3~4명의 미군 참모장교, 그리고 한국전 참전 8개국의 연락장교단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⁷⁵⁾

미국은 1951년 9월 8일에는 서방진영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미·일안보조약도 체결, 일본을 서방진영에 편입시켜 한국전쟁 및 공산진영

고 군사참모위원회는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표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헌장 규정을 근거로 유엔군 창설에 대하여 유엔 창설과정과 그 후에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다. 1947년 2월 13일 안보리의 요청으로 같은 해 4월 30일 안보리에 보고된 「유엔회원국에 의한 안보리에 제공할 병력 조직에 관한 일반원칙」에서 41개조를 열거했는데, 안보리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기서 유엔군을 육·해·공군으로 구성하는데 육군의 경우 미국안은 20개 사단, 소련안은 12개 사단이었다. Military Staff Committee, Year of the United Nation, 1947-48, UN, pp. 493-495.

74) 안용현, 『한국전쟁미사』 제5권(부록·전사자료), 경인문화사, 1992. p. 86.

75) 참전국 연락단구성은 미국 4명, 호주 4명, 캐나다 2명, 프랑스 4명, 뉴질랜드 2명, 필리핀 3명, 태국 7명, 영국군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pp. 4-5.

과의 냉전전략에 일본을 활용했다. 당시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후, 애치슨과 요시다의 교환공문서에 “유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시설 및 역무가 계속 필요하며, 또한 분쟁이 재발할지 모르므로 강화조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유엔군이 극동에서 활동할 때 유엔활동에 참가하는 군대가 일본국내 및 부근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고 허용한다”⁷⁶⁾고 명시하였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 2월 19일, 미국과 일본은 「유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여 “유엔군의 합동회의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미·일안보조약을 근거로 미국은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일본은 주한유엔군 후방사령부로서 기능⁷⁷⁾을 하고 있다.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요코다 공군기지, 자마 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후텐마 해병대항공기지, 카테다 공군기지는 유엔군이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련성은 제 2의 한반도 유사시의 한·미·일의 공조관계와 특히 미·일의 협력관계, 유엔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시 미·일간의 역할관계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주제어: 한국전쟁, 유엔군, 일본의 지원, 소해활동, 후방지원

76) 위의 책, 『戰後日本防衛問題資料集』第Ⅱ卷, pp. 234-235. 애치슨·요시다 교환공문.

77) 유엔사 후방지휘소 임무는 ① UN과 일본간의 SOFA협정유지, ② UNC기지에 외국 선박 및 항공기의 방문요청 승인, ③ 일본에서 발생하는 유엔사 관련사항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 ④ 일본에서 유엔군사령관을 대신하여 유엔사 업무수행 및 필요시 유엔사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조치시행 등이다.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제5집, 2001, pp. 4-5.

<ABSTRACT>

A Study on Cooperations between Japan and UN during the Korean War

Lee, Jong-Pan

Before the treaty of peace called as the termination of the Pacific War was concluded, the Korean War had broken up. Postponing the planned treaty of peace with a defeated nation Japan, the United States tried to rebuild Japanese Army or take part in the Korean Peninsular as the volunteer corps and fully utilized it as a role of a rear support. Through the Korean War, Japan strived to fix up severely accumulated domestic problems, which were intense complications of the leftists and the rightists, economic poverty and a discord concerning the treaty of peace etc. Also, Japan achieved an early stage and US-led peace negotiations climbing on the UN forces' bandwagon.

Japan published a diplomatic white paper on August the sixteenth 1950 in order to comment on the Korean War formally and interpreted the Korean War as a war between the Communist camp(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the China Communist, the North Korea, and the Japanese Communist Groups) and the Western-led Democratic Camp. In addition, this paper showed that if the UN command checked this war in the Korea Peninsular, next target would be Japan. In view of ideological warfare, Japan also was a theater situated in the Korean War, then Japan emphasized this point. However, Japan wouldn't support to the United States directly because of lack of war justification and couldn't give support

to South Korea immediately. Accordingly Japan bolstered up the United States with the justification that he cooperated with the UN.

Cooperation matters of Japan toward the UN forces were to furnish the base for military exercises, air forces, and ammunitions and to help operations for harbors and maritime transportation, a sea-mine sweeping, making ammunitions and so on. In the long run, Japan reopened the ordnance production and had special procurement demands due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t will be significant that we study the comparison of cooperation articles of Japanese toward the US-led U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Japan written in neo-guideline which Japan-US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case of the breakup of an emergency approved on September the twenty-third in 1997.

US and Japan didn't execute a proposal to rearm and put Japan in the Korean War, but the communist bloc predicted possibility of Japan's intervention in a war according to a USSR's document. As you know the historical facts of the north-east Asia, if Japanese-forces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t might have been a repetition of a past event. Continuously this fact might be considered in the present and future Korean Peninsular emergency.

Key Words : Korean War, UN forces, Support of Japan, Sea-mine sweeping,
Rear Support